

로버트 바노이(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10

여성 창조, 진화론

4. 여성의 창조

a. 입증된 필요성

우리는 창세기 2장을 논하다가 4장 “여자의 창조” 까지 이르렀습니다. 개요 시트에 몇 가지 하위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그 중 첫 번째는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에게 합당한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진술입니다. “내가 그에게 합당한 도움을 주겠다.” 거기에서 “그에게 합당하다” 로 번역된 단어는 그들이 유사성을 통해 일치했음을 시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용어를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어 사전에서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분에게 동등하고 합당한 도움” 이라는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자신에게 상응하고, 자신에게 동등하고 합당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움” 이라는 용어가 열등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으로 돌아가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둘 다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종이 아니라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남자를 보완하는 자요 남자와 상응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주시기 전에 아담은 모든 피조물,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다 불러다가 무엇이라 부르실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이 가축과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20절 마지막 구절에 “자기와 동등하고 합당하며 자기에게 상응하는 돕는 자가 없었더라” 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자료의 요점은 이 모든 생물 가운데 아담에 상응하는, 즉 아담과 같은 생물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과 아담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담이 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그는 아마도 동물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특징지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동물 사이의 차이와 자신과 유사한 파트너와의 교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비. 아담의 “갈비뼈” 인가 아니면 “옆구리” 인가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여자를 창조하신 후, 아담은 “이제 드디어”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이것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다른 생물들을 다 살펴보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마침내 여자가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여성은 진화적 발전의 산물이 아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치 마취제처럼 아담에게 깊은 잠을 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22절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 단수형이지만 여기서는 “ 그가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내 관심은 이 단어가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다른 경우에 일반적으로 “측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는 구약 전체에서 “갈비뼈”로 번역된 유일한 곳입니다. 용어의 사용법을 찾아보면 다양한 사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항상 측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25:12에서 측면의 사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의 옆면”은 언약궤를 가리킨다. 그래서 방주의 한쪽과 방주의 다른 쪽. 이것이 바로 이 용어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다. 출애굽기 27장 7절에 궤의 옆면에 “채는 고리에 꿰되고 채는 제단 양쪽에 꿰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0절, 성막의 다른 쪽과 북쪽에 널판 20개를 씌워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 곧 산비탈로 자기 길로 가니라” (2절) 사무엘 16:13).

이제 문제는 창세기 2장 21절의 맥락에서 복수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one of” 가 앞에 나옵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 “하나” 를 취했는데 아마도 열왕기상 6장에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갈빗대라는 개념이 적절한 번역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관해 읽은 용어의 용법은 그가 백향목 판자로 집의 벽을 내부에 건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드는 다시 복수형입니다. 삼나무 판자(boards of cedar)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판자를 의미합니다. 집 벽의 바닥과 천장 모두 내부는 나무로 덮고 내부는 모피 판자로 덮었습니다. 판자는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상 6장에서 그런 종류의 사용과 함께 여기서 창세기 2:21이라는 용어 이전에 사용된 용어 중 하나를 결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맥상 가장 좋은 번역은 “갈비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갈비뼈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지만. NIV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나는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NRSV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갈비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갈비뼈로 번역하는 것이 히브리어 용어의 사용법이 제안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나은 번역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가 옆에서 가져간 것을 가능성으로 표현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지만 그것은 복수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문제 번역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헌을 읽다 보면, 이 구절은 종종 “여자가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앗았다” 라는 조롱을 받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습니다. 모든 것이 일종의 조롱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Rib은 합리적인 번역이지만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명시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갈빗대에 대한 개념을 강화하는 또 다른 것은 23절에 있는 아담의 진술입니다. 그는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긴밀한 관계와 관련하여 더 비유적인 것인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의 골육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골육이요 당신의 골육이로소이다 분명히 그 표현에는 그가 그들 중 하나라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담이 표현한 창 2:23에서도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나와 합하는 이가 여기 있으니 내게서 빼앗긴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 예. 사무엘하 5장 1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채취한 갈비뼈인지 아닌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남자에게서 취하신 것이 있으니 그의 살이 열리고 깊은 잠에 빠지더니 그 취하신 것으로 여자가 만드셨느니라. 그것은 갈비뼈였을 수도 있고, 갈비뼈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의 측면에서 찍은 것입니다.

씨. 아담과 인류의 통합 요점은 아담이 깨어나 여자를 볼 때 자신에 대해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히브리어 시적 형식으로 표현이 제공됩니다. NIV를 보면 행이 설정되는 방식이 산문이 아니라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 중에서는 그런 파트너를 찾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상응하는 조력자, 즉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파트너를 주셨고 그는 자신과 여자 사이의 연합을 인식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행위로서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의 기원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즉시 읽었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참고문헌에서 저는 Francis Schaffer의 45페이지를 언급했습니다. Schaffer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매우 명확한 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그는 수많은 출발에서 튀어나온 적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통일성 안에 시작과 진정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은 그 이전의 모든 것과 구별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별되었습니다. 인류의 일치에 대한 기독교 개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연합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께서 친히 결혼의 띠를 인류의 연합이라는 실재와 연결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결합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대문자 M을 사용하는 “Man”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그 단결을 재결합시킵니다.”

디. 창세기 2:24 내레이터의 설명: 설명 또는 명령 이제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24절의 진술이 아담의 말의 연속이 아니라 작가의 말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23절을 보면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내용이 아니라 내레이터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24절과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설명인가요, 아니면 항상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 명령입니까?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문을 사용하면 어느 쪽이든 이해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동사 형태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라는 히브리어의 불완전 시제는 명령을 표현하는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나 습관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의미, 즉 명령으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존 칼빈(John Calvin)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야 한다’는 미래가 아니라 의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논평은 여성이 형성되는 방식 때문에 창조적인 과정의 기초가 됩니다. 남성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사실,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왜 규칙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창조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창조하셨고 ,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이 됨으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 이제 저는 일부일처제 결혼이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일반적으로 인류의 연합에 대해 말했지만, 여기서는 일부일처제 결혼이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아내 사이의 내적 연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인데, 이제는 결혼관계에서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신성한 계시를 통해 여자가 자기 몸에서 취해졌고 결혼 관계에서 원래의 연합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라” 는 표현을 육체적인 성적 결합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그것은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포함하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치는 그것에서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는 “창녀와 합한 자가 한 몸인 줄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물리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에서, 연합은 육체적 연합뿐 아니라 영적, 감정적 , 심리적 연합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는 그러한 단결을 위해서는 일부일처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요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유대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닙니다. 즉, 상호의존적이 됩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영적, 심리적, 정서적 결합을 포함하는 연합으로 이끌립니다.

5. 진화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화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 개의 하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진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용어가 종종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흔히 이 말은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인 원인에서 생겨났으며 자연 선택에 의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했다는 이론에 사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시적 진화론이다. 이론상 인류에게 발전시킨 아메바이다. 원래 아주 먼 옛날에는 모든 일이 그런 조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체는 스스로 분화하기 시작했고, 시간과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쳐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생물이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는 원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이자 용법이며, 그 개념이 창세기 1-3장의 창조 기록과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지난 10~15년 동안 유능한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관해 매우 심각한 질문을 제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여기서 진화론에 대한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 창조과학자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 신앙에 헌신하지 않은 유능한 과학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진화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시가 귀하의 참고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9 페이지 맨 위. 세 번째 항목은 Sir Fred Hoyle입니다. 제목은 *우주로부터의 진화입니다*. 1981년에 출간된 그 책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리뷰가 있으며 책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그 평론에서는 “영국의 한 저명한 과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일 가능성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Fred Hoyle 경입니다. 그는 왕립천문학회에도 소속되어 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도 선도적인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리뷰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공통 기원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점진적으로 진화한다는 다윈의 개념과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원시 수액의 무작위 과정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0과는 거리가 멀다” 고 그는 말했다. Hoyle은 67세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그의 연구는 성경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황에 대한 그의 분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는 “생체 분자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고, 조립을 위해서는 매우 명시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생명의 발달을 위해서는 다른 자연 선택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보기관에서 나왔습니다 .”

이제 그는 지능을 신이라고 부르기를 꺼려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부르는 “손짓하는 유령”이라는 지능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증거는 우주의 기원을 명확하고 결정적으로 지적합니다. 그의 생각은 생명이 이 행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딘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이 진화론을 토대로 다양한 생명체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저자의 사례를 만들면서 Ray Fine은 미생물학, 수학, 컴퓨터 기술 및 다윈 이론에 반하는 화석 기록을 인용합니다. 이론은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고생물학자들이 이론이 요구하는 느린 진화적 연결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식해 왔지만 일반적인 의견에는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두 과학자는

생명의 기본 복합 효소를 생산하는 일부 원시 수프에서 무작위로 화학적으로 섞일 확률은 1의 10의 40승 또는 1의 4만 제곱이라고 계산합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다원주의를 넘어서는 어려움: 비타협적 그들은 우주 전체가 유기 수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그 가능성이 너무 작아서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유전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누구도 이를 고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반란을 주목합니다.” 나는 이전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일단 사회 전체가 특정 개념 집합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교육의 연속성은 패턴을 바꾸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저자는 “당신은 개념을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의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교도.” 그들은 자신들의 반란이 예상했던 것처럼 맹렬한 공격으로 환영받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원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가설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과학 저널에는 침묵의 벽이 있습니다 . 모든 유능한 우주 수학자들은 그러한 다원주의적 아이디어가 작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더 높은 생명체의 진행을 설명하는 돌연변이라는 점을 확신할 것입니다. 컴퓨터 전문가라면 누구나

컴퓨터에 무작위로 실수를 던지는 것은 컴퓨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다윈주의는 저자가 말했듯이 일어난 진화적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칼 헨리 이제, 나는 진화론에 관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질문 종류의 한 가지 예를 설명하고 검토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듯이, 과학계 전체에서는 이론이 실제로 무시되지 않고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 이론 및 글쓰기 헌신과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누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

이번 리뷰는 날짜가 없습니다. 나는 Hoyle의 책과 *God Revelation and Authority* 에서 Carl Henry의 토론에 일반적으로 쓰여진 이러한 아이디어 중 일부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 그것은 9페이지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그가 진화론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논의하는 긴 섹션이 있습니다.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는 장입니다. 전체 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178페이지에서 그는 Hoyle의 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호일이 다른 사람들도 논의한 가능성, 즉 생명체가 우주에서 지구에 도착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